



이효림(Xiaolin Li, 목원대학교)

## 1. 들어가는 말

한국의 기독교 역사 초기에 선교의 주요 방편은 이미 중국어로 번역된 성서와 한글로 번역된 '쪽복음'이었다. 중국에 체류하고 있던 서양의 선교사들은 중국을 넘어 한반도로 선교의 지경을 넓히기 위한 여러 가지 방책을 고민하였는데, 당시에 한어(漢語) 문화권에 속해있던 조선 백성들에게 중국어로 번역된 성서는 매우 중요한 선교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 조선은 역사, 문화, 종교, 언어 면에서<sup>2</sup> 중국으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기에 '중국어

1 본 논문은 연구자의 박사논문(목원대학교 대학원, 2019.2)의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2 한글학회, 「큰 사전」(서울: 을유문화사, 1957)에 따르면, 한국어 중에서 한자의 비율을 52.11%로 계산하고 있다. 이희승, 「국어대사전」(서울: 민중서림, 1961)은 한국어에서 차지하는 한자의 비율을 69.32%로 보고하고 있다.

성서가 조선 선교의 주요 매개체가 되기에 충분했다고 볼 수 있다.<sup>3</sup>

중국을 방문했던 조선인들 중에는 그곳에서 서양의 선교사들을 직접 만나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독교인이 된 경우도 허다하다. 그들 중에는 조선으로 돌아와 직접 조선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인이 된 경우도 있지만, 중국에서 서양의 선교사들과 함께 한국어 성서<sup>4</sup> 번역에 동참한 자들도 있다. 이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한국어로 번역된 성서가 비록 부분적이라고 할지라도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한국어로 성서를 번역할 때에 중요한 모본(模本)이 되었던 것은 두말할 여지없이 이미 번역되어 있던 ‘중국어 성서들’이었다.<sup>5</sup> 그래서 당시 한자 문화권의 영향 하에 있었던 조선은 본격적인 선교에 앞서 한국어 성서 번역을 시도하게 되는 특별한 이력을 가지게 된 것이다.

중국이 조선에 미친 영향은 한국어 성서 번역의 역사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한국어 성서는 중국어 성서의 책 이름을 100%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았지만,<sup>6</sup> 상당히 많은 성서 각 권의 이름을 중국어 성서에서 그대로 가지고 왔

3 한국어 성서번역이 중국어 성서 번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몇 가지 환경적 요인(지리적, 역사적, 언어적, 문화적 환경)을 분석한 글은 다음을 참고하라. 민영진/전무용, “한국어 번역 성경에 나타난 중국어 성경과 일본어 성경의 비교”, 『성경원문연구』 19 (2006. 10), 176-199. 중국어역 성서, 일본어역 성서, 그리고 영어역 성서등의 저본(底本)이 한국어 번역 성서에 미친 영향을 위해서는 특별히 다음을 참고하라: 김병철, 『韓國近代翻譯文學史研究』 (서울: 은유문화사, 1975); 김봉희, “국역성서의 서지학적 고찰”,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1978); 김양선, “한국의 성서번역사 1-8”, 『성서한국』 (1955 ~ 1956년). 특히 박찬욱, “개화기 한문성서의 번역문화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1988)은 초기의 한국어 성서 번역이 중국어 성서 번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주장하고, 이수정(李樹廷, 1884)의 「현토한한성서번역」(懸吐漢韓新約聖書翻譯)과 유성용(兪星溶, 1906)의 「국한문성서」(國漢文聖書)를 비교하여 중국어 한문 성서가 한국어 번역 성서에 많은 영향을 주었음을 증명하려고 하였다.

4 ‘한국어 성서’와 ‘한글 성서’의 구분은 매우 애매하다. 해방 이전의 한글을 ‘한국어’라고 표현할 수 있는가의 문제도 있다. ‘중국어 성서’와 대칭되는 단어로 ‘한글 성서’보다는 ‘한국어 성서’가 어울리는 점도 있다. 그래서 해방 이전의 경우는 가능하면 ‘한글 성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해방 이후나 ‘중국어 성서’와 관련된 경우에는 ‘한국어 성서’를 선택하려고 한다. 논문이나 참고문헌의 제목의 경우는 원래대로 사용하고자 한다.

5 정중호는 중국에서 초기 선교사들의 성경 번역에 대해서 미숙한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경교 문헌의 초기 역사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정중호, “18세기 이전 중국과 한국의 십계명 번역과 해석의 역사”, 『구약논단』 50 집 (2013), 319-321.

6 고유명사가 들어있는 책의 제목은 영어 성서의 이름을 따랐다.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사무엘(Samuel), 여호수아(Jehoshua), 룿(Rut), 에스라(Esra), 느헤미야(Nehemiah), 에스더(Esther), 욥(Job), 이사야(Isaiah) 등의 예언서들.

다.<sup>7</sup> 66권의 각 책의 이름뿐만 아니라, 성서 속에 사용되는 많은 기독교적 용어들 속에 한자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예수(耶穌),<sup>8</sup> 독생자(獨生子), 성부(聖父), 성자(聖子), 성령(聖靈), 십자가(十字架), 은혜(恩惠), 동정녀(童貞女) 등. 중국과 한국은 여러 신학적 용어들을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요한 기독교적 용어들을 중국어 성서에서 많이 받아들인 것은 한국어 성서 번역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sup>9</sup>

중국과 한국의 선교 초기 역사에서 십계명(The Ten Commandments, 十誡命)은 매우 중요하였다. 기독교의 핵심교리로 교육되기도 하였고, 정약전(丁若銓)<sup>10</sup>의 ‘십계명가’(十誡命歌)<sup>11</sup>와 같이 십계명을 노래로 만들어 포교하기도 하였다. 박해를 받던 시기에는 성서를 마음대로 휴대할 수 없었기에 비밀 집회에서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처럼 십계명을 외우거나 교환하면서 신앙심을 견고히 하기도 하였다. 십계명은 일종의 기독교의 비밀 무기였고, 하나님과 끊임 없이 교제하는 암기 수단이 되기도 하였다.

7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창세기(創世記), 민수기(民數記), 신명기(申命記), 사사기(士師記), 열왕기(列王記), 역대기(歷代記), 시편(詩篇), 잠언(箴言), 전도서(傳道書), 아가(雅歌), 애가(哀歌), 마태복음(馬太福音), 마가복음(馬可福音), 사도행전(使徒行傳), 계시록(啓示錄).

8 한자 ‘耶穌’는 한국어로 ‘야소라’고 읽지만, 중국어 발음으로는 ‘예수’이다.

9 민영진/전무용, 뒷글, 178-179.

10 정약전(1758 ~ 1816년)은 유명한 「목민심서」의 저자 정약용의 형이다. 그는 당시 서양의 학문과 가톨릭을 받아들인 이벽 등의 남인 인사들과 교류하였고, 결국 이들로부터 깊은 영향을 받고 가톨릭 신자가 되었다. 1801년(순조 1년) 신유사옥 때 흑산도로 유배되었다. 서학에 깊은 관심을 가진 그는 예수회 신부들이 번역한 윌리엄스의 「기하원본」을 읽고 탐구했으며, 이벽의 권유로 「천주실의」 등 가톨릭 관련 서적들을 탐독했다.

11 ‘십계명가’는 ‘만천유교’에 실린 가사 중 제일 장편이다. 형식상으로 보아 ‘십계명가’의 특징은 4.4조의 운율을 주로 밟고 있는데, 처음부터 한글로 지어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운율을 밟고 있는 ‘십계명가’는 구약성서의 십계명을 당시 조선의 사회 현실에 비추어 노래하고 있다. ‘십계명가’의 순서를 살펴보면 구약성서의 십계명을 차례로 노래하고 있는데,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제9계명이 빠져있다는 점이다. 문학사적으로 볼 때 이 작품은 천주가사의 호시(嚆矢)이며 종교적인 포교가사(布教歌辭)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예술성은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지만, 미신타파(迷信打破)와 신(神)의 발견(發現)이 나타나고 서학(西學)의 유교적 연역과 해석이 보이며, 표현에 있어서 난해한 한자 숙어보다는 쉽고 대중적인 표현(꼭두각시, 나무신막, 오뉴월 거름, 파리 떼, 까막까지 등)이 많이 쓰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십계명가’는 매우 서민적인 노래이며, 언문일치(言文一致)의 선구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하성래, “정약전의 십계명가(十誡命歌)와 이벽의 천주공경가(天主恭敬歌) (1)”, 『神學展望』, No.21 (1973), 144-146.

본 논문은 십계명(출 20:1-17)<sup>12</sup>에 대한 중국어 성서와 한국어 성서의 번역을 비교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자는 십계명의 신학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것보다 는 중국어 성서와 한국어 성서의 십계명 본문에 대한 여러 번역본들의 서로 다른 단어 사용과 서로 다른 이해를 비교하고자 한다.

## 2. 「화합본」(1919년), 「사고(思高)역본」(1968년), 「현대중문역본」(수정판, 1995년), 「표준새번역」(1993년), 「개역개정」(1998년)의 십계명

십계명 본문의 비교 연구는 중국어 번역본들과 한국어 번역본들 중에서 5개를 선택하였다. 중국어 「화합본」, 「현대중문역본」, 「사고(思高) 역본」과 한국어 「개역개정본」과 「표준새번역」의 십계명을 비교하였다. 5개의 번역본들을 선택한 이유들이 있다. 「화합본」은 일반 대중들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문리체로 되어 있으며, 중국의 기독교가 사용한 지 오래되었기에 교회에서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sup>13</sup> 「현대중문역본」은 ‘내용의 동등성’ 이론에 근거한 번역본으로 가장 최근에 나온 역본이며, 「화합본」의 오역을 수정하고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참고하면서 원문의 뜻을 충실하게 전달하고자 노력하였다.<sup>14</sup> 「사고(思高)

12 십계명은 신명기 5장에 한 번 더 언급되고 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본 연구의 관심 밖의 일이다. 출애굽기 20장을 선택한 것은 신학적인 이유에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출애굽기 20장을 십계명의 본문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어 성서와 찬송가의 뒤쪽을 보면,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을 소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3 尤思德, 「和合本與中文聖經繙譯[M]」(蔡錦圖 譯), (香港: 國際聖經協會, 2002), 326. 「화합본」(和合本, 1919년)은 중국 성서 번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첫째, 「화합본」(和合本)은 중국어 성서 번역의 역사에서 얻어낸 중요한 성과물로 이전의 번역본들 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독자들이 읽기 쉬운 번역본으로 평가받고 있다. 1819년 모리슨에 의한 중국어 성서 번역본이 탄생한 이후 100년만의 쾌거이다. 둘째, 「화합본」(和合本)은 기존의 중국어 번역본의 단점을 극복한 문학적 중국어의 본보기가 되었는데, 가장 정확하고 면밀한 번역본으로 인정받고 있다. 셋째, 현재까지 중국 교회와 교인들에게 가장 신뢰성 있고 영적 권위가 있는 성서 번역본으로 인식되고 있다. 「화합본」이 출판되면서 각 지역의 방언 성서들을 대체하게 되었고, 전국적으로 사용되는 번역본의 위상을 지니게 되었다. 「화합본」은 1939년에 「국어화합본성경」으로 이름이 바뀌어 출판되었는데, 현재에 이르기까지 널리 읽혀지게 있고 가장 사랑받고 있는 중국어 역본이다.

14 현대 중국 표준어인 국어(Guoyu)로 번역된 성경전서로 가장 최근에 나온 역본이 홍콩성서공회에서 간행된 「현대중문역본」(現代中文譯本, Today's Chinese Version, 신약 1975년, 성경전서 1984년, 수정본 1995년)이다.

역본」은 가톨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역본인데, 성서 원문을 좀 더 충실히 따르면서 성서학의 연구 결과도 반영하고 있다.<sup>15</sup> 「개역개정본」은 형식적 일치 번역 원칙에 근거한 역본으로 한국 교회들이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표준새번역」은 「개역개정본」에 대한 반작용으로 역동적 동등성 원칙이 강조된 「공동번역」의 중간의 위치에 서 있는 역본이라고 볼 수 있다.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을 담고 있는 유명한 본문이다. 하지만 성서 안에는 ‘십계명’이라는 용어가 실제로 언급되지는 않고 있다. 다만 모세가 시내 산에서 두 번째 돌 판을 받을 때 “언약의 말씀 곧 열 마디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출애굽기 34장 28절을 살펴보면, 히브리어 성서(MT)에는 ‘아세레트 하드바림’(עֲשָׂרֵת הַדְּבָרִים), 즉 열 마디 말씀으로 표기되어 있다(참고, 신 4:13; 10:4). 여기서 ‘아세레트’(עֲשָׂרֵת)는 ‘10’이라는 뜻이고, ‘하드바림’(הַדְּבָרִים)은 단수형 ‘다바르(דְּבָרָה, 말씀)’의 복수형이다.<sup>16</sup> 십계명을 위해 중요한 ‘10’(ten)이라는 숫자는 처음으로 여기서 등장한 것이다.<sup>17</sup> 이 단어를 「화합본」은 ‘十条诫’(십개계)로, 「현대중문역본」은 ‘十条诫命’(십개계명)로, 「사고역본」은 ‘十句话’(열 마디 말씀)으로, 「개역개정」은 ‘십계명’으로 각각 번역하였다. 번역의 역사를 보면,

1946년 세계성서연합이 설립되고 당대 저명한 번역학자인 나이다(Eugene Nida)를 중심으로 전 세계 성서 번역자들을 위한 위원회가 조직되었는데, 미국성서공회는 1971년 나이다에게 현대 중국어로의 성서 번역을 요청하였다. 나이다의 번역 원칙에 따라 「현대중문역본」(現代中文譯本)은 도착어 문화권 독자들(중국인)에게 읽기에 자연스러우면서도 성서 원문 텍스트가 말하고자 했던 의미가 가능한 그대로 전달되도록 번역되었다고 평가받을 수 있다. 「현대중문역본」(現代中文譯本)은 현대 중국어의 언어 습관에 어울리는 번역을 시도한 것인데, 형식적인 등가를 지양하고 의미 부합의 원칙을 지키며 일상적인 언어를 주로 사용하고 방언이나 소수 계층에서 사용하는 어휘는 배제하였던 것이다.

15 「사고(思高) 역본」은 신학과 교리 면에서 로마 가톨릭교회의 전통과 선언에 충실한 번역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중국 가톨릭교회 안에서만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번역한 것이 아니라 비기독교인이나 개신교회도 함께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번역한 초교파적 번역본에 속한다. 형식적 일치를 지향한 번역본이라고 볼 수 있다. 1968년에는 신약전서 관주 해설판을 출간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에 구약과 신약성서 전체를 포함하는 수정된 합본 성경전서를 홍콩의 사고성경학회(思高聖經學會, Studium Biblicum O. F. M.)에서 출간하였다. 여기에는 제2 경전(외경)도 포함되어 있다. 「프란체스코 성서연구회」가 무려 16년 동안 성서 번역에 매진한 결과이다. 이 성서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첫째, 중국 가톨릭교회에서 처음으로 원역한 성서이다. 둘째, 현재 중국 가톨릭교회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성서이다. 셋째, 처음으로 온전하게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대본으로 번역한 가톨릭 성서이다. 넷째, 로마 교황청의 인가를 받은 성서이다.

16 차준희, 「출애굽기 다시보기」(서울: 프리칭아카데미, 2004), 174.

17 E. Nielsen, *The Ten Commandments in New Perspective* (London: SCM Press, 1968), 6-34

70인역(LXX)에서 ‘열 마디 말씀’을 처음으로 십계명이라고 칭하였다. 즉, 고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있던 유대인 랍비들이 ‘아세레트 하드바림’(אֲסֵרֶת הַדְּבָרִים)을 헬라어로 옮길 때 ‘데카’(δέκα: 10), ‘로구스’(λόγους: 말씀들)로 번역한 것에서 유래한 것이다.<sup>18</sup>

### 1) 십계명 서언(출 20:2)

십계명의 말씀은 각 역본에서 이렇게 시작되고 있다:<sup>19</sup>

역본	서언
MT	אַנְכִי יְהוָה אֱלֹהֶיךָ אֲשֶׁר הוֹצֵאתִיךָ מֵאֶרֶץ מִצְרַיִם מִבֵּית עַבְדִּים:
화합본	我是耶和華你的神，曾將你从埃及地为奴之家领出来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적이 있다.
사고역본	我是上主你的天主，是我領你出了埃及地，奴隸之所 나는 상주 너의 천주다. 내가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장소에서 인도해내었다.
현대중문역본	我是上主你的上帝，我曾經領你从被奴役之地埃及出来 나는 상주 너의 상제다. 내가 너를 종 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적이 있다.
표준새번역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 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개역개정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십계명의 서문은 하나님의 이름을 밝혀주고 있는데, 일종의 ‘자기-소개 문구’이다.<sup>20</sup> 「현대중문역본」은 출애굽의 신을 ‘상주 너의 상제’(上主你的上帝)라고 칭했다. 그리고 「사고역본」은 ‘상주 너의 천주’(上主你的天主)라고 표기하였다. 위의 번역본들과는 달리, 「화합본」과 「개역개정」은 하나님을 ‘여호와’(耶和華)로 칭하였다.

중국어 성서 번역의 역사는 당나라 때부터 시작하였다. 그때 하나님은 매

18 N. M. Sarna, *Exodus* (Jerusalem: The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91), 107. 번역 단어의 선택 이외에도 의미론적 평행법을 살려 번역을 해야한다고 주장한 제안은 다음을 참고하라. 방정열, “히브리 시의 평행법과 한글 번역: 한계와 여지(餘地)”, 「구약논단」, 69집(2018), 107-110.

19 「화합본」, 「사고역본」, 그리고 「현대중문역본」의 한국어 십계명 번역은 연구자의 사역임을 밝힌다.

20 W. Zimmerli, “Ich bin Jahwe”, in: *Gottes Offenbarung*, TB 19 (Munich: Chr. Kaiser Verlag, 1969), 11-40.

우 다양한 이름으로 칭해졌는데, ‘원존’(元尊), ‘진주’(真主), ‘아라가’(阿罗诃, Eloha 혹은 Elohim)로 번역되었다. 후에 하나님은 ‘두사’(陡斯), ‘천주’(天主), ‘천제’(上帝), ‘천’(天), ‘주’(主), ‘신’(神)으로도 번역되었다. 「현대중문역본」은 하나님을 항상 ‘상제, 신, 천주’의 세 가지 단어 중에서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다. 중국 가톨릭은 1707년에 하나님을 ‘천주’로 부르는 것으로 최종 결정하였고, 중국 개신교는 1919년에 ‘신’이나 ‘상제’로 부르기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십계명의 서언에서 「현대중문역본」은 하나님을 ‘상제’(上帝)로 번역한 것이다. 「사고역본」은 「현대중문역본」의 ‘상제’(上帝)를 ‘천주’(天主)로 바꿔서 번역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개역개정」과 「화합본」은 둘 다 하나님을 ‘여호와’로 번역하였는데, 이것은 「개정개역」이 「화합본」의 ‘여호와’(耶和華)를 그대로 참고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제1 계명(출 20:3)

역본	제1 계명
MT	לֹא יִהְיֶה לְךָ אֱלֹהִים אֲחֵרִים עִלַּיִן׃
화합본	除了我以外, 你不可有别的神 나 외에는 너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사고역본	除我之外, 你不可有别的神 나 외에는 너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현대중문역본	我以外, 不可敬拜别的神明 나 외에는 다른 신명을 경배하지 말라
표준새번역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개역개정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제1계명을 히브리어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라.” 이 요구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요구인데, 배타적으로 오직 야웨만을 섬기라는 절대명령에 해당된다. 히브리어 ‘알-파나야’(עַל-פָּנָי)는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표준새번역」이 번역한 것처럼 ‘내 앞에서’라는 뜻이다.<sup>21</sup> 여러 번역본들 중에서 원문의 의미를 가장 잘 살려냈다

21 김이곤, 「출애굽기의 신학」(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9), 213.



고 볼 수 있다. 나머지 번역본들은 모두 '나 외에는'(我以外)이라고 번역하였는데, 그 본래적 의미를 크게 왜곡시키고 있다. '내 앞에서'라는 번역은 문자적으로 보면 '내 얼굴 앞에서' 혹은 '나와 마주서서'가 된다.<sup>22</sup> 이러한 표현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이 단어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 즉 이스라엘이 드리는 모든 종류의 제의에서 다른 신들이 존재하고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sup>23</sup> 그러므로 「표준새번역」의 번역이 히브리어 원본의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어 「개역개정」은 다른 중국어 역본들을 그대로 따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히브리어 '엘로힘 아헤림'(אֱלֹהִים אֲחֵרִים)은 '다른 신들'이라는 뜻인데, 복수형이 사용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종교의 다른 신들을 지칭하고 있다. 구약성서는 자주 일체의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다(신 4:39; 6:14).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제1 계명은 단일신론(Henotheism) 사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sup>24</sup> 이것은 일종의 일신숭배론(monolatry)인데, 본질적으로 다른 신들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오직 한 하나님만을 믿거나 섬기는 것을 뜻한다.<sup>25</sup> 그러므로 제1 계명은 유일신론(Monotheism)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유일신론은 다른 신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것은 3개의 중국어 역본들은 동일하게 '다른 신(명)'이라는 단수형을 사용한 반면, 2개의 한국어 역본들은 똑같이 '다른 신들'이라는 복수형을 사용하였다는 점이다. 한국어 역본들이 훨씬 더 강한 어조로 일체의 어떤 다른 신도 섬겨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복수형을 사용한 한국어 역본들이 히브리어 원문의 뜻에 훨씬 더 가깝다. 「화합본」과 「사고역

22 R. Knierim, "Das Erste Gebot", ZAW 77 (1965), 20-39.

23 마틴 노트, 「출애굽기」(한국신학연구소번역실 옮김),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1), 193.

24 채홍식, 「십계명의 종교-사회사적 고찰」, 「구약신학저널」2 (2000), 141.

25 테렌스 E. 프레다임, 「출애굽기. 현대성서주석」(강성열 옮김),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1), 350.



본)은 ‘신들’(神们)이라는 표현 대신에 ‘신’(神)이라고만 번역했는데, 특이한 것은 「현대중문역본」은 ‘신’(神) 대신에 ‘신명’(神明)으로 번역했다는 점이다. ‘신명’(神明)은 하늘과 땅의 모든 신령을 말하는 단어인데, 그렇다면 사마니즘 세계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잡신을 총칭한다고 볼 수 있다. 「현대중문역본」의 또 다른 특징은 다른 신을 ‘경배’(敬拜)하지 말라고 번역했다는 점이다. 다른 신을 옆에 두는 행위를 종교적인 ‘경배’(敬拜) 행위로 본 것이다. 「표준새번역」이 「현대중문역본」의 의미와 동일한 차원에서 ‘섬기다’로 번역했다.

### 3) 제2 계명(출 20:4-6)

역본	제2계명
MT	<p>לא תעשה־לך פסל וְכֹל־תמונָה אֲשֶׁר בַּשָּׁמַיִם מִמַּעַל וְאֲשֶׁר בָּאָרֶץ מִתַּחַת וְאֲשֶׁר בַּמַּיִם מִתַּחַת לָאָרֶץ:</p> <p>לא־תִשְׁתַּחֲוֶה לָהֶם וְלֹא תַעֲבֹדֵם כִּי אֲנִי וְהוָה אֱלֹהֶיךָ אֵל קַנָּא פֶקֶד עֵינֵי אָבֶת עַל־בָּנָיִם עַל־שְׂלֻשִׁים וְעַל־רִבְעִים לְשֵׁנָאִי:</p> <p>וְעִשָּׂה חֶסֶד לְאֵלֵפוֹיִם לְאַהֲבֵי וּלְשִׁמְרֵי מִצְוֹתַי:</p>
화합본	<p>4절 不可为自己雕刻偶像, 也不可作什么形像, 彷彿上天, 下地, 和地底下, 水中的百物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b>조각</b>하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 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5절 不可跪拜那些像, 也不可事 奉他, 因为我耶和华你的神是忌邪的神, 恨我的, 我必追讨他的罪, 自父及子, 直到三四 代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b>여호와 네 하나님은 사악한 것을 질 투하는 하나님</b>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b>죄를 갚되</b>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 6절 爱我守我诫命的, 我必向他们发慈爱, 直到千代 나를 사랑하고 내 계 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p>
사고역본	<p>4절 不可為你製造任何彷彿天上, 或地上, 或地下水中之物的雕像 너를 위하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조상도 <b>제조</b>하지 말며 5절 不可叩拜這些像, 也不可敬奉, 因為我, 上主, 你的天主是忌邪的天主; 凡惱恨我的, 我要追討他們的罪, 從父親直到兒子, 甚至三代四代的子孫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 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b>상주 너희의 천주는 사악한 것을 질투하는 천주</b>이다. 나 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 값으로,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 거니 6절 凡愛慕我和遵守我誠命的, 我要對他們施仁慈, 直到他們的千代子孫 그러나 나 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에는 천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 는다</p>

<p>현대중문 역본</p>	<p>4절 不可为自己造任何偶像, 也不可仿造天上, 地上, 或地底下水中的任何形像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b>만들지</b> 말고 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모조하지 말며 5절 不可向任何偶像跪拜, 因为我是上主, 你的上帝, 我绝不容忍跟我对立的神明, 恨恶我的人, 我要惩罚他们, 甚至到三, 四代的子孙 아무 우상들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하지 말라. 나, <b>상주, 즉 너의 상제는 나와 대립하는 신명을 절대 용납하지 못한다.</b>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 값으로, 삼사 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릴 것이다 6절 但爱我, 遵守我命令的人, 我要以慈爱待他们, 甚至到千代子孙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p>
<p>표준 새번역</p>	<p>4절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b>만들지</b> 못 한다 5절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b>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b>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b>죄 값으로</b>, 본인뿐만 아니라 삼사 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6절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p>
<p>개역개정 역본</p>	<p>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b>만들지</b>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b>네 하나님 여호와</b>는 <b>질투하는 하나님</b>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b>죄를 갚되</b>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p>

4절의 ‘폐셀’(פֶּסֶל)은 신으로 섬기려고 나무나 돌에 새겨 만든 조각상을 가리킨다. 그런 의미에서 「화합본」은 ‘폐셀’(פֶּסֶל)을 ‘조각’(雕刻)으로 번역하였다. 반면 「사고역본」은 쇠붙이를 녹여 만든 모양을 뜻하는 ‘제조’(製造)라는 단어로 번역하였다. 그런데 「현대중문역본」은 훨씬 더 넓은 의미로 ‘만들다’(造)를 사용하였는데, 「표준새번역」과 「개역개정」은 ‘조각하다’와 ‘제조하다’의 의미를 모두 포함한 「현대중문역본」의 ‘만들다’(造)를 따르고 있다.

각각의 번역본들을 살펴보면, 5절에 언급된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히브리어 성서(MT)는 ‘여호와 네 하나님’(יהוה אלוקינו), 아도나이 엘로헤이카)이라고 말하고 있다. 「화합본」도 ‘여호와 네 하나님’(耶和华你的神)으로 표현하고 있다. 「개역개정」은 동격으로 진술된 신명의 어순만을 바꾸어 ‘네 하나님 여호와’로 번역하였다. 그런데 「사고역본」은 ‘상주, 즉 너의 천주’(上主, 你的天主)라고 했고, 「현대중문역본」은 ‘상주, 즉 너의 상제’(上

主, 你的上帝)로 진술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표준새번역」은 ‘주 너희의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여호와’를 ‘주’로 바꾸었고 2인칭 남성 남수형인 ‘너’를 2인칭 남성 복수형 ‘너희들’로 번역하였다. 이러한 신명의 차이는 이미 십계명 서언(출 20:3)에서 확인한 바이며, 십계명 전체에 동일하게 진술되고 있는 각각의 역본들의 두드러진 차이점이다. 각각의 역본들이 보이는 신명(神名)의 차이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MT	화합본	사고역본	현대중문역본	표준새번역	개역개정
אלהים	神	天主	上帝	하나님	하나님
יהוה	耶和華	上主	上主	주	여호와
(인칭)	你(너)	你(너)	你(너)	너희	너

5절에 보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엘 카나(אל קנא)’이다. ‘질투’로 번역된 히브리어 ‘카나(קנא)’는 번역하기가 쉽지 않은 단어 중의 하나이다. 이 단어는 항상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약속된 충성심이 의심되는 곳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 단어의 명사형 ‘키나(קנא)’는 보통 ‘질투’로 번역되고 있지만, 세속적인 의미에서 볼 수 있는 부정적인 의미의 질투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 단어의 본래적인 의미를 살린다면 ‘열정’ 혹은 ‘정열’이라고 말할 수 있다.<sup>26</sup> 「화합본」과 「사고역본」에서 ‘질투’라는 단어는 ‘사악한 것을 질투하다’(忌邪)로 번역되었다. 그런데 「현대중문역본」에서는 이 단어를 ‘나와 대립하는 신명을 절대로 용납하지 못한다’(我絕不容忍跟我對立的神明)로 번역했는데, 이것은 ‘질투’의 신앙적 의미를 확대시켜 설명한 것이다. 즉 일체의 다른 어떤 신들을 용인할 수가 없다는 뜻이다. 그리고 「표준새번역」은 이방 신을 섬기는 자들을 향해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 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삼사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라고 진술

26 Ina Willi-Plein, *Das Buch vom Auszug: 2. Mose(Exodus)*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88), 140.

하고 있는데, 「현대중문역본」의 ‘벌을 내린다’(懲罰)의 의미를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2 계명을 어긴 자들을 향한 징벌의 의미를 매우 강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개역개정」은 ‘죄를 갚되’라고 번역했는데, 이 번역은 「화합본」과 「사고역본」의 ‘죄를 갚다’(追討罪)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제3 계명(출 20:7)

역본	제3계명
MT	לֹא תִשָּׂא אֶת־שְׁמֵי־יְהוָה אֱלֹהֶיךָ לְשׁוֹן כִּי לֹא יִנְקֶה יְהוָה אֶת אֲשֶׁר־יִשָּׂא אֶת־שְׁמוֹ לְשׁוֹן:
화합본	不可妄称耶和華你神的名, 因为妄称耶和華名的, 耶和華必不以他为无罪 여호와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b>망령되게 부르지 말라</b> . 왜냐하면 여호와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는 여호와가 그를 <b>반드시 죄 없다 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b> .
사고역본	不可妄呼上主你天主的名; 因为凡妄呼他名的人, 上主决不让他们免受惩罚 상주 네 천주의 이름을 <b>망령되게 부르지 말라</b> . 왜냐하면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는 상주가 <b>반드시</b> 그들에게 <b>징벌</b> 을 못 받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대중문역본	不可濫用我的名; 凡濫用我名的人, 我上主, 你的上帝一定惩罚他 내 이름을 <b>남용하지 말라</b> . 내 이름을 남용하는 자는 내 상주 너의 상제는 <b>반드시</b> 그를 <b>징벌</b> 을 할 것이다.
표준새번역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b>함부로 부르지 못한다</b> .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b>죄 없다고</b> 하지 않는다.
개역개정역본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b>망령되게 부르지 말라</b> . 여호와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b>죄 없다</b> 하지 아니하라.

「화합본」과 「사고역본」과 「개역개정」은 ‘망령되게’(妄)라고 번역한 반면, 「현대중문역본」은 ‘남용’(濫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표준새번역」은 ‘함부로’라고 번역했다. 흥미로운 것은 제3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인데, 이 규정은 각 절의 후반부에 언급되어 있다. 「표준새번역」은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라고 번역했고, 「개역개정」은 “여호와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라”고 비슷하게 번역했다. 이러한 번역은 「화합본」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어 역본들이 한국어 역본들과 분명하게 다른 점이 있다. 중국어 역

본들은 모두 다 매우 강한 어조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죄가 있을 것이든지 혹은 징벌이 임할 것이라고 번역했다. 하지만 번역본들이 사용한 강조부사는 각각 다르다. 「회합본」은 ‘必,’ 「사고역본」은 ‘決,’ 그리고 「현대중문역본」은 ‘定’을 사용하였다. 제3 계명의 엄중한 경고를 강조하는 단어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사고역본」과 「현대중문역본」은 제3 계명을 어기는 자들에게 ‘징벌’(懲罰)이 임할 것이라는 강한 표현을 사용하였다. 제3 계명이 이 ‘징벌’이 무엇인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두 역본은 제3 계명의 엄중함과 중요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를 보여 준 것이다.

### 5) 제4 계명(출 20:8-11)

역본	제4계명
MT	<p>זָכוֹר אֶת-יוֹם הַשַּׁבָּת לְקַדְּשׁוֹ: שֵׁשַׁת יָמִים תַּעֲבֹד וְעֵשִׂיתָ כָּל-מְלַאכְתְּךָ: וַיּוֹם הַשְּׁבִיעִי שַׁבָּת לַיהוָה אֱלֹהֶיךָ לֹא-תַעֲשֶׂה כָּל-מְלַאכְתָּהּ אַתָּה וּבִנְךָ-וּבִתֶּךָ עִבְדְּךָ וְאִמָּתְךָ וּבְהֵמָתְךָ וְגֵרְךָ אֲשֶׁר בְּשַׁעְרֶיךָ:</p>
회합본	<p>8절 当纪念安息日, 守为圣日 안식일을 <b>기념하여</b> 거룩한 날로 지키라 9절 六日要劳碌作你一切的工 옛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10절 但第七日是向耶和华你 神当守的安息日, 这一日你和你的儿女, 仆婢, 牲畜, 并你城里寄居的客旅, 无论何工都不可作 일곱째 날은 여호와 네 하나님의 안식일로 지키라. 이날에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족이나 네 성 안에 머무는 숙박인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11절 因为六日之内, 耶和华造天, 地, 海, 和其中的万物, 第七日便安息, 所以耶和华赐福与安息日, 定为圣日 이는 옛새 동안에 여호와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거룩한 날로 정하였다.</p>
사고역본	<p>8절 应记住安息日, 守为圣日 안식일을 <b>기억하여</b> 거룩한 날로 지키라. 9절 六天应该劳作, 作你一切的事 옛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10절 但第七天是为恭敬上主你的天主当守的安息日; 你自己, 连你的儿女, 你的仆婢, 你的牲口, 以及在你中间居住的远方人, 都不可作任何工作 일곱째 날은 상주 네 천주를 공경하기를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날이다.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족이나 네 가운데 머무는 외방인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11절 因为上主在六天内造了天地, 海洋和其中一切, 但第七天休息了, 因此上主祝福了安息日, 也定为圣日 왜냐하면 상주가 옛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상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거룩한 날로 정하였다.</p>

현대중문역본	<p>8절 要謹守安息日爲聖日 안식일을 <b>엄수하여</b> 거룩한 날로 지키라 9절 你有六天可以工作 너는 옛새 동안은 일을 행할 수 있으나</p> <p>10절 第七天是分別歸我的安息日, 這一天, 無論是你, 你的兒女, 奴婢, 牲畜, 或僑居的外族人, 都不可工作 일곱째 날은 내 <b>거룩한 안식일인즉</b> 이날에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족이나 혹은 거주하는 외족인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p> <p>11절 我上主在六天里創造了天, 地, 海, 和其中萬物, 但在第七天休息, 因此, 我上主賜福安息日, 定爲聖日 내 상주는 옛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그러나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내 상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거룩한 날로 정하였다.</p>
표준새번역	<p>8절 안식일을 <b>기억하여</b> 그 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9절 너희는 옛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10절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와,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짐집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11절 이는, 내가 옛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 주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다.</p>
개역개정	<p>8절 안식일을 <b>기억하여</b> 거룩하게 지키라 9절 옛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10절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와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족이나 네 문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11절 이는 옛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p>

주목할 만한 사실은 8절의 히브리어 ‘자코르’(זָכַר)를 중국어 역본들이 서로 다르게 번역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단어는 강조 명령형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언약에 대한 의무를 말하는 문맥에서는 항상 ‘착오 없이 지키다,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선적으로 지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sup>27</sup> 「화합본」은 이 단어를 ‘기념(記念)하다’로, 「사고역본」은 ‘기억하다’로, 그리고 「현대중문역본」은 ‘엄수(謹守)하다’로 각각 번역하였다. 「표준새번역」과 「개역개정」은 「사고역본」의 ‘기억하다’를 따르고 있다. 히브리어 동사 ‘자카르’(זָכַר)는 원래 ‘기억하다’의 의미를 강하게 가지고 있다. ‘기억하다’는 사전적 의미로 볼 때 ‘이전의 인상이나 경험을 의식 속에 간직하거나 도로 생각해 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물론 히브리어 동사 ‘자카르’(זָכַר)는 ‘기념하다’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 ‘기념하

27 존 더햄, 「출애굽기」(손석태/채천석 옮김), (서울: 솔로몬, 2000), 478.

다’는 ‘어떤 뜻깊은 일이나 훌륭한 인물 등을 오래도록 잊지 아니하고 마음에 간직하다’라는 의미이다. ‘기억하다’와 ‘기념하다’는 공통적으로 안식일을 잊지 않기 위해 마음속 깊은 곳에 그 날을 간직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현대중문역본」은 ‘자카르’(זָכַר)를 ‘엄수(謹守)하다’로 번역했는데, 이 단어는 ‘명령이나 약속 따위를 어김없이 지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볼 때 ‘엄수(謹守)하다’는 안식일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 이상을 요구하는 것인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행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6) 제5 계명(출 20:12)

역본	제5계명
MT	כִּבְדוֹ אֶת־אָבִיךָ וְאֶת־אִמֶּךָ לְמַעַן יָרַכְכֶּן יְיָ אֱלֹהֶיךָ וְאַתָּה יָרַכְתָּ אֶת־אֲבֹתֶיךָ וְאֶת־אִמֶּיךָ
화합본	当孝敬父母, 使你的日子在耶和华你神所赐你的地上得以长久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사고역본	应孝敬你的父亲和你的母亲, 好使你在上主你的天主赐给你的地方, 延年益寿 네 <b>부모</b> 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상주 네 천주가 네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현대중문역본	要孝敬父母, 好使你在我要赐给你的土地上享长寿 네 <b>부모</b> 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표준새번역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개역개정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각각의 역본들의 제5 계명을 비교해보면, 대동소이하다. 다만 「사고역본」만이 다른 역본들과는 다르게 ‘부모’(父母) 대신에 ‘부친과 모친’(父親, 母親)으로 번역한 것을 볼 수 있다. 어머니가 아버지와 동등한 위치에서 자녀들의 공경을 받아야 한다는 외침은 고대 근동의 사회적 정황을 비교해볼 때 매우 의미심장하다. 구약성서 시대의 고대 근동사회는 당시 분명한 남자의 세계였다는 점을 기억해본다면, 제5 계명이 여자로서의 어머니의 위상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인



정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sup>28</sup>

### 7) 제6 계명 (출 20:13)

역본	제6계명
MT	לא תרצח:
화합본	不可杀人 살인하지 말라
사고역본	不可杀人 살인하지 말라
현대중문역본	不可杀人 살인하지 말라
표준새번역	살인하지 못 한다
개역개정	살인하지 말라

위의 도표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중국어 역본들이든지 한국어 역본들이든지 “살인하지 말라”(不可杀人)라는 번역은 모두 동일하다. 언급할만한 차이점이 전혀 없다. 단지「표준새번역」만 ‘~하지 말라’는 강한 의미의 명령형 대신에 ‘~하지 못 한다’라는 단언적 권면형의 금령으로 서술되고 있다.

### 8) 제7 계명(출 20:14)

역본	제7계명
MT	לא תנאף:
화합본	不可奸淫 간음하지 말라
사고역본	不可奸淫 간음하지 말라
현대중문역본	不可奸淫 간음하지 말라
표준새번역	간음하지 못 한다
개역개정	간음하지 말라

28 차준희, 「출애굽기 다시보기」(서울: 프리칭아카데미, 2004), 191. 참조, B. S. Childs, *The Book of Exodus*, (Philadelphia, Pennsylvania: The Westminster Press, 1974), 419.

제7 계명과 관련된 번역본들은 특별한 언급할만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3개의 중국어 역본들은 동일하게 ‘不可奸淫’(간음하지 말라)라고 번역하였고, 한국어 역본들도 마찬가지다. 「표준새번역」만 ‘~하지 말라’라는 강한 어조의 명령문 대신에 ‘~하지 못한다’라는 단언적 명령문을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 9) 제8 계명(출 20:15)

역본	제8계명
MT	לא תגב: (출 20:15)
화합본	不可偷盜 도둑질하지 말라
사고역본	不可偷盜 도둑질하지 말라
현대중문역본	不可偷竊 도둑질하지 말라
표준새번역	도둑질하지 못 한다
개역개정	도둑질하지 말라

제8 계명에 대한 여러 번역본들의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 이번에도 「표준새번역」에서만 “不可偷盜”(도둑질하지 말라)는 강한 명령문 대신에 “도둑질하지 못 한다”라는 일종의 단언적 문장을 사용하고 있다.

### 10) 제9 계명(출 20:16)

역본	제9계명
MT	לא תענה ברעך עד שקר: (출 20:16)
화합본	不可作假见证陷害人 <b>사람에</b>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사고역본	不可作假见证, 害你的近人 <b>네 가까운 사람에</b>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현대중문역본	不可作假证陷害人 <b>사람에</b>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표준새번역	<b>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b> 하지 못 한다
개역개정	<b>네 이웃에</b>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번역본들 사이에는 차이점이 발견되고 있다. 히브리어 명사 ‘레아’(:re)는 원래 ‘동료, 이웃, 친구’ 등을 가리키고 있으며, 구약성서에서는 언제나 상호간에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뜻하고 있다.<sup>29</sup> 법적인 맥락에서는 언약 공동체에 속해 있는 동료를 가리키다. 「개역개정」과 「표준새번역」의 ‘이웃’이라는 번역이 히브리어 원문에 가장 충실하다고 볼 수 있다. 「사고역본」은 ‘近人’(가까운 사람)으로 번역하였는데, 한국어 번역본들과 비슷한 번역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화합본」과 「현대중문역본」에서는 ‘레아’(:re)를 ‘人’(사람)으로 번역함으로써 광의의 의미를 적용하였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거짓 증언 내지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두 개의 중국어 번역본은 ‘레아’(:re)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거짓 증언’에 한정하지 않고, 혀로 남을 헐뜯고 타인을 중상 모략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시키고 있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표준새번역」이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 한다”라고 번역한 점이다. 이 번역은 오해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에 올바른 번역이라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번역은 이웃에게 유리한 거짓 증언은 해도 된다는 뜻으로도 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제9 계명이 유리한 거짓 증언은 괜찮고, 불리한 거짓 증언만 안 된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일체의 모든 거짓 증언을 금지하는 것이 제9 계명이라고 보아야 한다.

11) 제10 계명(출 20:17)

역본	제10계명
MT	לא תחמד בית רעך לא תחמד אשת רעך ועבדו ואמתו ושורו וחמרו וכל אשר לרעך:
화합본	不可贪恋人的房屋。也不可贪恋人的妻子。仆婢，牛驴，并他一切所有的 사람의 집을 탐내지 말라 사람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29 J. Fichtner, "Der Begriff des Nächsten im Alten Testament", in: *Wort und Dienst* 4 (Bethel: Verlagshandlung der Anstalt Bethel, 1955), 23-52.

사고역본	不可贪你近人的房舍, 不可贪恋你近人的妻子, 仆人, 婢女, 牛驴及你近人的一切 네 가까운 사람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가까운 사람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 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현대중문역본	不可贪图别人的房屋; 也不可贪爱别人的妻子, 奴婢, 牛驴, 或其他东西 너희 이웃 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나 <b>혹은 기타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b>
표준새번역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 한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 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b>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b>
개역개정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 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번역본들 사이에 두드러진 차이점은 보이지 않지만, 「현대중문역본」은 끝부  
분에서 다른 번역본들과는 조금 다른 번역을 제공하고 있다. ‘或其他东西’(혹  
은 기타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 「표준새번역」도 이와 비슷하다.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 한다.’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다른  
역본들과는 그 뉘앙스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어 보인다. ‘어떤 것도’라는  
단어는 이웃의 소유 중의 아주 조금도 탐심을 절대로 허락할 수 없다는 강력한  
강조의 의미가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3. 나가는 말

중국어 성서와 한국어 성서의 십계명 본문 비교는 서언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에 이르기까지 진행되었다. 십계명의 신학적 의미를 찾는 방법이 아니라,  
5개의 역본들이 보여주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고자 노력하였다. 십계명  
번역과 관련하여 가장 논쟁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칭호’ 문제였음을 알 수 있  
다. 중국의 가톨릭은 1907년에 하나님을 ‘천주(天主)로 부르기로 결정했고, 중  
국 개신교는 1919년에 ‘신(神)이나 ‘상제(上帝)로 칭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를  
반영하여 「현대중문역본」은 상제(上帝)로, 「사고(思高) 역본」은 ‘천주(天主)로  
언급되고 있다. 한국어 「개역개정」은 「화합본」의 번역 원칙에 따라 하나님을

‘여호와’로 불렀다.<sup>30</sup>

번역본들 사이에서 하나님과 관련된 1-4계명은 미묘한 차이점을 많이 보여주는 반면, 인간과 관련된 5-10계명은 크게 두드러진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 1-4계명은 비교적 긴 문장들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그 문장들 안에 들어 있는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들의 해석의 난해함과 각각의 번역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경향에 따라 십계명의 해석들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자면,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제1 계명에서 한국어 역본들은 중국어 역본들보다 훨씬 더 강한 어조로 일체의 어떤 다른 신도 섬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런 차이점은 중국의 문화와 한국의 문화, 내지는 양국의 민족성과도 깊이 관련된다고 말할 수 있다. 거대한 대륙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이질적인 소수민족들로 구성된 중국이라는 나라의 특성과 오랫동안 단일민족의 역사를 지니고 있던 한국의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배경이 제1 계명 문장의 유연성과 단호함을 결정하게 되었을 것이다.

성서 번역은 모험이며, 일종의 반역이라는 말이 있다. 피선교국의 언어로 의미를 전달하고자 할 때 어떤 상황도 번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미의 굴절 내지는 의미의 변화를 막을 방법이 없다. 그 의미의 굴절과 변화는 번역된 성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연속적인 확장성을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며 중요하다. 번역 과정에서 완벽한 대응어를 찾는다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하다. 그 문화와 시대에 적합한 최선의 대응어를 찾기 위해 노력할 뿐이다.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된 성서가 중국어나 한국어로 번역되는 과정도 마찬가지이다. 원천 언어와 수용 언어 사이의 차이는 올바른 의미 전달을 방해하기에 때로는 약간(?)의 첨가(addition)와 삭제(subtraction)와 변경(alterations)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십계명의 번역에서 5개의 중국어와 한국어 번역본들이 보여준 일치점과 차이점은 어찌면 당연한 것이다. 더 나아가 중국어 역본들과 한

30 번역 방법에 있어서 원천언어와 대응언어의 선택과 번역에 대한 고충과 변화에 대한 논의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하라. 민영진, “성서번역에서 언어-윤리-권력: 남기고 가는 문제”, 『구약논단』 69집 (2018), 23-27.

국어 역본들이 각각 서로 간에 가지고 있는 신학적 차이점은 서로 다른 대응어를 찾는 결과가 되었을 것이다. 적합한 언어적 대응어를 찾는 노력은 5개의 번역본들의 성서 번역자들이나 성서 번역 위원회에서 끊임없이 진행되었을 것이다. 불가능의 가능성을 찾기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성서가 번역될 때마다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 4. 참고문헌

- 김병철, 「韓國近代翻譯文學史研究」(서울: 은유문화사, 1975).
- 김봉희, 「국역성서의 서지학적 고찰」,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1978.
- 김양선, 「한국의 성서번역사 1-8」, 「성서한국」(1955 ~ 1956년).
- 김이곤, 「출애굽기의 신학」(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9).
- 마틴 노트, 「출애굽기」(한국신학연구소번역실 옮김),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1). 원저 Noth, Martin, *Exodus: A Commentary* (Philadelphia, PA: Westminster Press, 1974).
- 존 더햄, 「출애굽기」(손석태/채천석 옮김), (서울: 솔로몬, 2000). 원저 Durham, John, *Exodus* (Dallas, TX: Word Books, 1987).
- 민영진, 「성서번역에서 언어·윤리·권력: 남기고 가는 문제」, 「구약논단」 69집 (2018), 21-52.
- 민영진/전무용, 「한국어 번역 성경에 나타난 중국어 성경과 일본어 성경의 비교」, 「성경원문 연구」 19집 (2006. 10), 176-199.
- 박찬욱, 「개화기 한문성서의 번역문학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1988.
- 방정열, 「히브리 시의 평행법과 한글번역: 한계와 여지(餘地)」, 「구약논단」 69집(2018), 107-139.
- 이희승, 「국어대사전」(서울: 민중서림, 1961).

- 정중호, “18세기 이전 중국과 한국의 십계명 번역과 해석의 역사”, 『구약논단』 50집 (2013), 318-347.
- 차준희, 『출애굽기 다시보기』 (서울: 프리칭아카데미, 2004).
- 채홍식, “십계명의 종교-사회사적 고찰”, 『구약신학저널』 2(2000), 136-154.
- 테렌스 E. 프레다임, 『출애굽기. 현대성서주석』 (강성열 옮김), (서울: 한국 장로교출판사, 2001). 원제 Fretheim, Terence E., *Exodus* (Louisville, KT: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10).
- 한글학회, 『큰 사전』 (서울: 을유문화사, 1957).
- 하성래, “정약전의 십계명가(十誡命歌)와 이벽의 천주공경가(天主恭敬歌 (I))”, 『神學展望』 No. 21 (1973), 136-154.
- Childs, B. S., *The Book of Exodus*. The Old Testament Library, Philadelphia(Pennsylvania: The Westminster Press, 1974).
- Fichtner, J., “Der Begriff des Nächsten im Alten Testament”, in: *Wort und Dienst 4* (Bethel: Verlagshandlung der Anstalt Bethel, 1955, 23-52).
- Knierim, R., “Das Erste Gebot”, *ZAW* 77 (1965), 20-39.
- Nielsen, E., *The Ten Commandments in New Perspective* (London: SCM Press, 1968).
- Sarna, N. M., *Exodus* (Jerusalem: The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91).
- Willi-Plein, Ina, *Das Buch vom Auszug: 2. Mose (Exodus)*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88).
- Zimmerli, W., “Ich bin Jahwe”, in: *Gottes Offenbarung*, TB 19, (Munich: Chr. Kaiser Verlag, 1969, 11-40).
- 尤思德, 和合本興中文聖經翻譯[M], 蔡錦圖, 譯, (香港: 國際聖經協會, 2002).



## 검색어

중국어 성서

한국어 성서

십계명

신명(神名)

# A Comparative Study of Chinese and Korean Bible Translations of the Decalogue (Exod. 20:1-17)

Xiaolin Li

Lecturer at Mokwon University

Mokwon University, Th.D.

This study focused on the Ten Commandments. The Ten Commandment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translation process of the Chinese Bible and the Korean Bible. When literature evangelism was not active, the Ten Commandments were loved by many Christians for their preferred text of expressing the rules on the life of a believer. I compared the Ten Commandments in Chinese Bible versions with those in Korean Bible versions to see how their interpretations were made. Their interpretations were dynamic by time periods, characters, or translation rules. The original meaning of the Ten Commandments was also differently applied in East Asian culture.

I studied the different understandings of the words in various versions. Moreover, my focus was on the differences between the Chinese Bible and the Korean Bible. It is meaningful for me as a Chinese to do a comparative study on the versions with different intentions. The question of how the Korean Bible accepted the Chinese Bible is also

[www.kci.go.kr](http://www.kci.go.kr)

important for Korean scholars.

The study of the first through fourth commandments related to God shows many variations in the Bible versions. There is no particular difference from the fifth through tenth commandments related to people's lives. The first part typically produced different interpretations of the longer and more difficult theological concepts compared to other parts. Translators rather have to consider which words would perfectly fit in their society, which explains that the translation processes bear tremendous effort to find possibility out of impossibility.

The changes and editorial works are so important because these tasks provide continuous extensions of the Bible. It is not easy to find out exact words in the translation process. Translators just seek to find most preferable words. This process was the same even in the translation from Hebrew to Greek. There would be additions and subtractions, even alterations. Consistency and inconsistency in the translation process may be natural. Rather, translators should think about which words are best for their society. Whenever the Bible is translated into another language, there must be an effort to find the possibility out of impossibility.

## Keywords

Chinese Bible  
Korean Bible  
the Decalogue  
names of God

- 투고일: 2019년 7월 10일
- 심사일: 2019년 7월 16일
- 게재 확정일: 2019년 7월 30일

[www.kci.go.kr](http://www.kci.go.kr)